

나의 사랑하는 자여

마가복음 1:4-11

Jan. 10, 2021

오늘은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 오늘은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옳겠습니다. 온 몸이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으니까요? 침례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을 할 때에,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게 하지요? 대부분 경우, 물을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에 뿌리면서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온 몸을 잠기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침례 교회 처럼 예식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을 머리 위에 붓는 예식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전통은, 어떤 모양으로 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믿고, 세례 예식을 합니다.

세례에 관하여, 침례 교회, 감리교회의 차이 중에 또 하나는, 침례 교회는 성인 세례만 인정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장로교, 성공회 다른 개신교회들과 함께, 유아 세례도 행합니다. 왜 그렇지요? 간단히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세례 예식은 인간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중심에 있는 예식으로, 성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아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 어린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짐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들리십니까? 그리고 하늘로 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황홀하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사진 찍었을 겁니다. 녹음도 하고요. 침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참 의미를 밝혀 줍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의 자서전에 잘 기록해 놓아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유아 세례입니까? 성인 세례입니까? 아직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준비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였다면 기억하기 힘드시겠지요.

기억하시든, 기억하지 못하시든간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게 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웃들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례의 중요한 두가지 꼭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선포하시는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요즘 세례 받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당하는 티켓 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간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갓 난 아이가 병으로 죽게 된 상황이 될 때, 부모들은 목사나 신부들을 불러서,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저도 두 번, 갓 난 아이를 위해서 세례 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당가게 하려고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성례전이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조씨 아들, 최씨 딸로만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이 세상이, 험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이 사실,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우리들을 짓누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이것 못해, 너는 저것 못해. 너는 가방끈이 짧아. 너는 몸이 뚱뚱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이민자야. 너는 노동자야. 너는 육신의 병자야. 너는 중독자야. 너는 나이 많은 노인이야. 이것 잘 못하고 저것 잘못했어. 너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무용지물이야.

세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저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세상의 누구도, 저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알볼수 없고, 쓸모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웬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년 동안 나는 인생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의 함정이 성공, 인기 또는 권력이 아니라 자기 비하 (Self Rejection) 라는 것을 깨닫게되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욕심, 자기 자랑해 보겠다는 욕심, 남보다 위에 올라가겠다는 욕심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은, 자기 비하하는 유혹에 빠질 때에, 더 빠지기 쉽게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이다, 사랑 받지 못할 존재이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남보다 잘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남보다 위에 올라가겠다는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쉽습니다.”

계속, 나우웬 신부님은 말하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걸리지 말아야 할 유혹의 덫은 자기 비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에,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맞아, 이것 봐,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존재야.” 합니다. 그리고 자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 마땅해. 나는 이렇게 혼나는 것이 당연해. 나는 이렇게 잊혀지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는 영적 생활에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매일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라” 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세례를 기억하며, 매일 매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임을 확인시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셨습니다. 세례의 사건은 성령에 충만히 채움받는 사건입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광 함께 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목적을 가지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거룩한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세례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로, 다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대변해주는 좋은 예술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유리창에서 볼 수 있는 스테인 글라스(색 유리창, Stained Glass)입니다. 여러 모양의 유리 조각을 접합하여 다양한 색깔과 배합하여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유리 조각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둥근 것도 있고, 네모진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뺄어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둥근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 세모진 사람, 찌그러진 사람, 뺨뿔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스테인 글라스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다양한 색깔들이 빛을 받아 놀라운 그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 성경과 헬라어의 뜻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특별한 그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빛인 것입니다. "You are here to be light, bringing out the God-colors in the world."(유진 피터슨)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는 바로 그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답한다면, 세례 받은 우리들입니다.

목사가 천당에 간 꿈을 꾸었습니다. 갔더니, 천국 문에서 베드로가 묻기를,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은 후에, "세상에서 살면서 뭘 했느냐"고 하면서, 천국 기록책을 펼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심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 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사회 봉사 활동도 했고, 정의 구현하는 운동에도 참여하였다고 하였더니,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실망하고, 돌아서니, 베드로가 부르면서 묻기를, "당신이, 새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새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작은 일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친절과 사랑이, 하나님의 눈에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가주에 있는 한 친구네는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 중의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4월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코로나로 고생했다는 소식을 새해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교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교우가 힘들어하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섬기는 종이 라고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를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분이 제게 전해 주기를, 힘들었지만 잘 견디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교우 서너분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얼마나 고마웠는 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한 분은, 약을 픽업해서 갖다 주었고, 어떤 분은, 장을 보아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의사 만나러 가는 데 운전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종성 목사님께서 입원하신 소식을 나누면서, 중보 기도팀과 일일 일장 운동에 합류한 교우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 지 모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웨어필드 그레이스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의하여, 받으신 세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귀한 딸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히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런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